

## <서동요>의 현대적 변용

유옥례\*

<차 례>

1. 머리말
2. 무왕조 <서동요>
3. 뮤지컬 <서동요>
4. 무왕조 <서동요>의 현대 뮤지컬  
<서동요>로의 장르전환
5. 결론

### 1. 머리말

우리 민족은 시와 이야기를 좋아하는 민족이다. 또한 우리들 누구에게나 이야기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작품 속에 투영되어 나타나게 된다. <서동요>는 민담 속에 민요의 형태를 띤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작품 속에서만 접하다가 시대가 흐름에 따라 오늘날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 보는 것을 즐기고 있다. 사람들은 책을 읽는 대신에 TV를 시청하거나 영화, 연극, 뮤지컬 등을 관람한다. 이러한 시대변화의 흐름에 따라 <서동요>도 연극으로 한 번 공연한 적이 있었고 지금은 뮤지컬로 1년에 한

번씩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학 작품이 연극이나 뮤지컬로 공연되어 성공을 거둔 작품들은 민요풍의 작품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민요로서 녹두장군도 공연된 적이 있는데 이 작품도 민요풍의 노래이다. <서동요>는 오랜 세월 동안 구전되다가 향찰이란 문자로 정착된 작품이며, 민간에서 불려지기도 한 작품이다. <서동요>가 연극으로 살아남지 못한 이유로는 시가문학이 예술의 종합장르라는 점에서 뮤지컬의 세 요소인 춤, 노래, 연기에 부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요소를 뮤지컬이 다 갖추어져 있어 연극보다는 뮤지컬에 잘 부합된 작품이라 생각한다. <서동요>가 국민들로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것은 주제가 계급을 초월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작품 <서동요>가 뮤지컬로의 장르전환에서 변하는 것과 변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 2. 무왕조 <서동요>

무왕조 <서동요>는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작품 중의 하나이며 지금까지도 시, 소설, 이야기, 뮤지컬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 받고 있다. 익산의 보석 축제가 열리는 것도 <서동요>의 황금과 무관하지 않다고 들었다. <서동요>를 익산시에서는 익산이 낳은 인물 무왕으로 부각시키려 하고 있지만 뚜렷한 실증이 없어서 고심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백제의 무왕과 신라의 진평왕의 셋째 딸과 결혼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 무왕과 진평왕 때 두 나라는 전쟁중이었고 무왕은 『삼국사기』에 과부의 아들이 아니라 법왕의 혈통을 이은 아들이라는 기록으로 보면 부여인으로서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실은 서동에 대해 학계에서는 동성왕<sup>1)</sup>이 무왕일 것이라는 설과 무령왕설<sup>2)</sup>·원효설<sup>3)</sup> 등이 있고 최근 김성기는 무왕과

\* 전남대학교

1) 이병도, 『서동설화에 대한 신고찰』,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무강왕의 두 개의 설화가 복합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그 증거로 “古本作武康非也百濟無武王”에서 우리는 「무왕」조의 저본이 「고본」에는 주인공이 엄연히 무왕이 아니고 무강왕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일연이 무강왕에서 무왕으로 편술 과정에서 자의로 바꾸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만약에 일연이 이 글을 지으면서 「고본」을 그대로 옮겼다면 당연히 지금 전하고 있는 글은 제목도 무강왕이고, 내용도 무강왕의 일로 전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백제 30대 무왕과 신라 진평왕의 공주 善花사이의 연애담이 아니라, 익산의 마한 시대에 무강왕(건마국)과 홍성(사로국)의 善化와의 연애담으로 전해왔을 것이다.<sup>4)</sup>라고 한다. 필자도 김성기의 설에 동의하며 마한시대 건마국의 무강왕과 사로국의 선화공주와의 로맨스로 본다. 이 〈서동요〉의 작가와 시대가 정확히 제시되어야 극본에서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무왕조는 다음과 같다.

무왕(고본에는 무강이라 했으나 잘못이다. 백제에는 무강이 없다)

제30대 무왕의 이름은 장이다. 그어머니가 과부가 되어 서울 남쪽 못가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못 속의 용과 관계를 맺어 장을 낳았다. 어릴 때 이름은 서동(薯童)이었는데 그 도량이 커서 헤아리기가 어려웠다. 항상 마를 캐다가 팔아 생계를 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서동이라고 이름 지었다. 신라 진평왕의 셋째공주 선화(善花)(혹은 선화(善化)가 무척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는 머리를 쥐고 서라벌로 가서 마을 아이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고 이에 동요를 지어 아이들이 피어서 부르게 하였는데 그 노래는 이러했다.

선화공주 님은 남 몰래 어려두고(선화공주니름 남그스지 어려 두고)  
서동방(薯童房)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서동방을 밤에 몰안고 가다)

薯童謠(武王 · 武康王)

善化公主主隱	善化公主니름
薯童房乙	맛동방을
他只嫁良置古	남그스지 얼어두고
夜矣卯乙抱遣去如	바미 몰 안고가다
	(三國遺事：梁柱東 譯)

동요가 서울에 널리 퍼져 대궐에까지 들리니 백관들이 임금에게 극진히 간해서 공주를 먼 곳으로 귀양 보내도록 했다. 공주가 떠나려 하자 왕후는 순금 한 말을 노자로 주었다. 장차 귀양터에 도착하려하는데 도중에 서동이 나타나 공주에게 절하고 모시고 가겠다고 했다. 공주는 그가 어디에서 왔는 지는 알지 못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미덥고 좋아서 따라가며 잠통(潛通)했다. 그런 뒤에 서동의 이름을 알았고 동요가 맞는 것도 알았다. 함께 백제로 와서 모후가 준 금을 꺼내 놓고 살아갈 계획을 세우려 하는데 서동이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이것이 무엇이요?”했다. 공주가 말하기를 “이것은 황금이니 백 년의 부를 누릴 것입니다”했다. 서동은 “나는 어릴 때부터 마를 캐던 곳에 황금을 흠덩이처럼 쌓아 두었소”라고 말했다. 이에 공주가 크게 놀라며 말하기를 “그것은 천하의 가장 큰 보배이니 그대는 지금 그 금이 있는 곳을 알면 그것을 가져다 부모님 궁전에 보내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했다. 서동이 “좋다”하며 금을 모아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용화산(龍華山)<sup>5)</sup> 사자사<sup>6)</sup>의 지명법사에게 가서 이것을 실어 보낼 방법을 물으니 법사가 말하기를 “내가 신통한 힘으로 보낼 것이니 금을 가져 오시오”했다. 이리하여 공주가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와 금을 사자사 앞에 갖다 놓으니 법사가 신통한 힘으로 하룻밤 사이에 신라 궁중까지 갖다 두었다. 진평왕은 그 신비스러운 변화를 이상히 여겨 그를 더욱 존경했으며 편지를 항상 보내서 안부를 물었다. 서동이 이로부터 인심을 얻어 왕위에 올랐다. 어느날 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가려고 용화산 밑 큰 못가에 이르니 미륵삼존(彌勒三尊)이 못 가운데서 나타나므로 수레를 멈추고 절을 했다. 부인이 왕에게 말하기를 “제발 이곳에 큰 절을 지어 주십시오 그것이 간절한 소원임

2) 사재동, 「서동설화 연구」, 『장암지현영선생화갑기념논총』, 호서출판사, 1971, 269쪽.

3) 김선기, 「쑈똥노래」, 『현대문학』 통권 151호, 1967.7, 302쪽.

4) 金成基, 「武王條 · 薯童謠背景譚 研究」,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2001, 21쪽.

5) 지금의 익산시 미륵산.

6) 전북 익산시 용화산에 있던 절로, 지금의 미륵산 사자암(師子菴).

니다”했다. 왕이 그것을 허락하고 바로 지명법사에게 가서 못을 메울 일을 의논했다. 진평왕이 여러 공인들을 보내서 그 역사를 돕게 했는데 그 절은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삼국사(三國史)에는 이 분을 법왕의 아들이라 했는데 여기에서는 과부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자세히 알 수 없다) 武王7)

〈서동요〉는 一然의 『三國遺事』에 실린 향가 14수 중 奇異 제2편에 실린 작품이다. 작품의 제목이 〈서동요〉가 아니라 武王條로 보면 일연은 작품보다는 배경담(이야기)에 더 치중을 했다고 보여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시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역사가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서술하는 데 반하여 시인은 일어날 수도 있었을 사건에 관해서 쓴다는 데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는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고 의미 심장하다.”8) 김성기는 〈서동요〉의 배경담은 허구적인 향가의 민

7) 古本作 武康非也百濟無武康

第三十 武王名璋 母寡居築室於京師南池邊 池龍交通而生小名薯童 器量難測 常掘薯預 賣爲活業 國人因以爲名 聞新羅眞平王第三公主善花一作善化 美艷無雙 剃髮來京師 以薯餉閭里群童 群童親附之 乃作謠 誘群童而唱之云

善花公主主隱 他密只嫁良置古  
薯童房乙 夜矣卯乙抱遺去如

童謠滿京 達於宮禁 百官極諫 竄流公主於遠方 將行 王后以純金一斗贈行 公主將至窟所 薯童出拜途中 將欲待衛而行公主難不識其從來 偶爾信悅 因此隨行 潛通焉 然後知薯童名 乃信童謠之驗 同至百濟 出母后所贈金 將謨計活 薯童大笑曰 此何物也 主曰 此是黃金 可致百年之富 薯童曰 吾自小掘薯之地 委積如泥土 主聞大驚曰 此是天下至寶 君今知金之所在 則此寶輸送父母宮殿何如 薯童曰可 於是聚金 積如丘陵 詣龍華山師子寺知命法師所 問輸金之計師曰 吾以神力可輸 將金來矣 主作書 并金置於師子前 師以神力 一夜輸置新羅宮中 眞平王異其神變 尊敬心甚 常馳書問安否 薯童由此得人心 卽王位 一日 王與夫人 欲幸師子寺 至龍華山下大池邊 彌勒三尊出現地中 留駕致敬 夫人謂王曰 須創大伽藍於此地 固所願也 王許之 詣知命所 問填池事 以神力一夜積山填池爲平地 乃法像彌勒三會(尊)殿塔廊 各三所創之 額曰彌勒寺 國史云王興寺 眞平王遣百工助之 至今存其寺 三國史云是法王之子而此傳之獨女之子 未詳 一然, 『三國遺事』, 제2 武王條

8)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예림기획, 31쪽.

譚이 아니라 실제의 역사이며,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던 항목이다.9) 라고 말하고 있다. 필자도 〈서동요〉의 이야기는 민담의 형태를 띠다가 구전되어서 향찰이라는 그릇에 담아졌을 것으로 보여진다.

### 3. 뮤지컬 서동요

소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설화성 곧 이야기(story)와 敍事이다. 이야기를 산문형식으로 서술하면 그것은 일차적으로 소설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소설의 淵源을 고대의 서사문학으로 보려는 것이 몰튼(R.G Moulton)의 견해이다. 정상균은 서사 문학의 본류를 이루고 있는 후대의 Romanc와 Novel의 원조인 서사시가 신화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가 공통인데, 한국에서는 일연의 불교적인 저작에 의해 한국의 신화가 보존되어 한국서사문학의 역사적 전개에 절대적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은 이미 학자들에 의해 크게 긍정되었다10)고 했다. 소설의 구성요소를 構成, 문체, 主題라 하며 소설구성의 삼요소는 인물, 플롯, 배경이라 말하기도 한다. 소설이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서 서로 유기적이고 긴밀한 연관을 맺은 가운데 하나의 효과를 이룬다고 하겠다. 뮤지컬의 세 요소는 춤, 노래, 연기이다.

〈서동요〉가 뮤지컬로 무대현장에서 공연된 것은 복잡한 이야기의 구조 때문은 아니다. 이야기의 구조가 복잡할 경우 관객은 지루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뮤지컬 〈서동요〉는 익산시에서 해 년마다 한 번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품이다. 〈서동요〉가 이렇게 사랑 받아 공연이 이루어진 바탕에는 주제가

9) 金成基, 『武王條·薯童謠背景譚 研究』,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학회, 23쪽.

10) 정상균, 『한국중세서사문학사』, 아세아문화사, 1972, 98쪽.

많은 고통을 이겨내며 성공한 초월적인 사랑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서동요〉는 이야기 속에 서정시가 삽입되어 있는 구조의 형태로 되어있다. 대중이 흥미를 갖고 있는 이야기 구조는 사랑이야기와 성공담의 이야기이다. 이 중 〈서동요〉는 사랑이야기로 이루어져 있고 옛날이나 지금까지도 사랑 받고 있으며, 현재는 뮤지컬로 공연되어지고 있는 작품 구조이다.<sup>11)</sup> 소설과 영화, 연극 뮤지컬은 이야기가 구조를 뿌리로 가진다는 점에서는 서사체이지만, 엄밀히 다른 매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뮤지컬과 문학은 같은 줄거리를 다루는 매체이지만 그 표현 양식이나 제작방식은 전혀 다르다. 뮤지컬은 보는 이야기지만, 서사체(소설)는 읽는 이야기이다. 뮤지컬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객관적인 영상으로 이야기하는 데 비하여, 소설은 관념적이고 은유적이며 주관적인 심적 환기작용을 이용해 이야기하고 있다.

소설은 길이가 무척 자유스러워 초장편 소설로부터 콩트까지 다룰 수 있는데 비하여, 뮤지컬은 2시간 30분 정도 내외의 시간을 단위로 삼아서 관객에게 보여준다. 또한 소설이 개인의 창조물이지만 뮤지컬은 집단의 창조물이다.

소설은 작가의 개인적 견해와 사유방식, 표현방식이 존중되는 매체인데 비하여 뮤지컬은 자금을 지원하는 제작자의 상업적 의도가 많이 반영되는 매체이다. 따라서 소설을 뮤지컬화 할 경우 두 매체는 같은 줄거리를 다루면서도 운명적으로 다른 작품일 수밖에 없다. 대중 소설의 경우에는 관객의 구미에 맞게 쓰여지며 뮤지컬의 경우에는 더욱 철저하다. 다만 〈서동요〉의 경우에는 이와는 다른 예라고 생각한다. 〈서동요〉는 서동이 익산의 인물임을 알리기 위해서 익산시 주제로 공연이 이루어진 점을 보면 상업적인 쪽보

다는 향토애가 깔린 예술적인 면이 더욱 강조되었다고 생각된다.

뮤지컬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등장인물〉

- 서동     마를 캐서 생활하던 백제의 서동. 풍채 영특 위대하고 자기가  
          웅장 호걸스런 청년. 후에 백제의 무왕이 된다
- 선화     신라의 셋째공주.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자태로운 공주.
- 知命법사 사자사의 주지스님. 서동의 스승.
- 서동모   서동의 어머니
- 진평왕   신라 26대 왕. 선화공주의 어머니
- 진평왕비 마야부인. 선화공주의 어머니
- 덕만공주 진평왕의 첫째딸. 총명하고 아름다운 공주. 후에 선덕여왕이  
          됨.
- 천명공주 진평왕의 둘째딸.
- 대덕     신라의 최고 종교지도자 智命스님.
- 아찬     (김용춘)천명 공주의 남편될 자.
- 상대등   신라최고의 벼슬.
- 미륵삼존 세분. (미타삼존 彌陀三尊 약사삼존 藥師三尊, 釋迦三尊)
- 개똥이   서동을 따르는 시복.
- 똥괄이
- 발뚱이   꼭두쇠와 광대패.
- 대신과   군사들
- 사냥꾼   1 2 3.
- 外     총 20명 출연.

1장.     서동의 집앞/용화산 사자사 뜰.  
          은신중인 서동 어미의 집이 어스푸레한 새벽빛에 보일듯하고  
          다른쪽엔 사자사의 지명 법사가 조용히 가부좌하고 있는 모습  
          이 보인다.

11) 〈서동요〉는 1970년 10월 3일 극예술회 제2회 공연으로 서동전설을 극회시킨 사극(맛동왕자와 선화공주)를 익산 중학교 교정의 특설무대에서 공연함. 서동설화를 최초로 연극화했지만 일회성으로 끝났다.

지명법사 (별이 오는 소리에 눈을 뜨고) 참으로 존귀한 분이 오시는 구

M1 나! 나무 관세음 보살..  
 “서동의 탄생”. (배경음악)  
 지명법사가 목탁을 치기 시작하자 서동어미가 산통을 겪느라  
 요동치는 모습이 문풍지로 비쳐보이고 둥둥둥 북소리와 그에  
 어우러지는 여러 음악 소리가 신이 난 듯 몰려온다.  
 연못 속에서 꿈뜰대던 용한마리도 솟구쳐 올라와 춤을 춘다.  
 갑자기 그 만장하던 기세가 일제히 숨죽 이는 적요의 순간.  
 적요를 찢어내는 우렁찬 아기 울은 소리.

E. 응에 ^^  
 용은 어느새 희뿔한 공중 속으로 사라지고 여인네가 갖닿은 아  
 기를 소중히 싸안고 나와 용이 사라져간 하늘을 향해 노래  
 를 부른다.

M2- 어머니의 노래(서동모의 독창)  
 서동모 하늘이시여! 별님이시여!  
 이 아이를 보살펴 주세요  
 혹여나 누가 알아챌다면  
 어린 생명을 앗아가겠지  
 이 귀한 생명 위해서라면  
 여기 숨어서 지내겠어요  
 하늘이시여! 별님이시여!  
 이 아이를 지키어 주세요.  
 기약도 없는 왕가의 핏줄  
 나의 한 생애 인연됐으니  
 이 귀한 생명 지키기 위해  
 이름도 없이 살게 하리라.  
 (혼자 중얼거리며) 아기야. 세상이 널 눈치채진 안돼. 알겠니?  
 그래 이름일망정 천하게 지어줘야지.

2장. 서동의 집앞/용화산 사자사 뜰.  
 말뚝이를 비롯한 동네 아이들이 사방을 향해 외친다.

일동 개똥아 똥팔아 서동아 노올자!

개똥아 똥팔아 서동아 노올자!  
 개똥이 (줄레 줄레 나타나며) 개똥이 여겼다!<sup>12)</sup>  
 11장  
 대덕 미륵님이 오셨습니다.  
 덕만 뭐라구요?  
 대덕 저길 보십시오 공주마마.  
 덕만 나무관세음 보살! 세상에! 오, 이제 사라지셨군요.  
 대덕 두 왕손의 만남이 대자대비 부처님의 인연법에 의한 것이었나  
 봅니다.  
 덕만 그러니 저들을 그냥 죽이겠습니까. 묘방을 알려주세요. 스님  
 대덕 (망설이다가) 아니될 일이나 한가지 수가 있긴 있습니다.  
 덕만 말씀해주세요. 죽기로 해보면 아니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동 (간절하게) 묘방을 말씀해주세요.  
 선화 (동시에) 묘방을 말씀해주세요!! 스님!  
 대덕 주문을 만들어 퍼뜨려 보는 것입니다.  
 덕만 주문이라구요?  
 대덕 저들의 사랑을 노래로 만들어 장안의 어린 아이들이 밤낮으로  
 외고 다니게 해보십시오.  
 선화 참으로 그러면 된단 말인가요 스님?  
 대덕 예로부터 못사람의 입은 쇠도 녹이는 천의 소리라 하였습니다.  
 순진한 어린아이들에게 주문을 외게 하면 뜻이 하늘로 통하여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덕만 그건 안됩니다. 이일이 세상에 드러나면 우리 선화가 큰 곤욕  
 을 치루게 될 것입니다..  
 선화 전 상관없어요 언니! 차라리 이 일을 널리 알려 세상에서 허락  
 하면 결혼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동님과 함께 죽겠어요.  
 덕만 서동님, 한번 해보시겠소?  
 서동 해보겠습니다. 뭐든 다 해보겠습니다.  
 덕만 (서동에게) 어찌 노래를 퍼뜨릴 작정이시요?  
 서동 아이들에게 맛있는 마를 나누어 주면서 그 대가로 노래를 외게

www.kci.go.kr  
 12) 김정훈, 『서동요』, 익산예술단, 2쪽.

하면 금방 퍼져 나갈 것입니다. 장안까지 멀리멀리 퍼져 나갈  
것입니다.

12장 신라의 왕실.

어두운 무대 위를 떠도는 가느다란 서동 요의 노랫가락이 차츰 증폭되어  
신라의 왕실을 뒤 흔들기 시작한다.

M21- 서동요. (어린이들의 합창)  
아름다운 공주님 신화공주님은  
남몰래 맛동방을 사귀고 있네  
깊은 궁궐 속 신화공주님은  
밤이면 맛동방을 꼭껴안는데.

후렴) 서동 서동 서동의 사랑  
신화공주 사랑은 서동뿐이네.<sup>13)</sup>

#### 4. 무왕조 〈서동요〉의 현대 뮤지컬 〈서동요〉로의 장르전환

다음은 작품과 뮤지컬과의 비교를 통해서 장르전환에서 변화 가능한 것  
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어떤 사람이 인물 묘사를 할 경우 보통 외모로부터 시작하여 차차 그의  
성격과 정신으로 옮겨서 묘사를 할 것이다. 책의 경우에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다. 책의 경우에는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형태를 먼저 관찰한다. 더 나아  
가서 책뿐만 아니라 어떤 단위나 독립적인 것을 나타내는 형식의 소설 · 수  
필 · 희곡 등과 같은 다양한 글쓰기도 마찬가지이다. 예술 형식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개의 커다란 분야로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다. 즉 그것은 바로

‘장르’와 ‘문체’이다. 흔히 우리가 ‘문학 장르’를 고대인에게서 차용하였듯이,  
사상이나 창조에 형태를 부여하고 있는 일종의 틀에 박힌 형식을 같은 시대  
의 외국인에게서도 차용을 한다. 바로 우리가 논의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차용된 문학 장르에서부터이다.<sup>14)</sup>라고 방티겔은 말하고 있다. 또한 방티  
겔은 “애초부터 사람들은 어린애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좋아하는데 이것은  
다양한 시 형태의 장르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서정적 장르”<sup>15)</sup> 말하고  
있는데 〈서동요〉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사람들은 사랑이야기를  
좋아했을 것이고 이런 이야기는 구전되어서 향찰로 정착되었다고 보여진  
다. 그는 또 문학 장르는 두 가지의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말하면서  
하나는 대중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다른 하나는 작가에 의한 강조성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 장르의 적용은 대중의 취향에 부합하는 것이라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대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보면 〈서동요〉가 여기에 부합한 것  
으로 보이며, 〈서동요〉는 처음에는 작가가 만들었는지라도 전승하는 중에  
대중에 의해 다시 제 창조된 작품으로 보여진다.

뮤지컬의 대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등장인물〉

서동 마을 캐서 생활하던 백제의 서동. 풍채 영특 위대하고 지기가  
웅장 호걸스런 청년.

신화 신라의 셋째공주.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자태 고운 공주.

知命법사 사자사의 주지스님. 서동의 스승.

서동모 서동의 어머니

진평왕 신라26대 왕. 신화공주의 아버지.

진평왕비 마야부인. 신화공주의 어머니.

덕만공주 진평왕의 첫째딸. 총명하고 아름다운 공주. 후에 선덕여왕이

13) 김정훈 『서동요』, 익산예술단, 1~35쪽.

14) P. 방티겔, 김종원, 『비교문학』, 예림기획, 1999, 71~72쪽.

15) P. 방티겔, 앞의 책, 74쪽.

됨.  
 대덕 신라의 최고 종교지도자 智命스님.  
 아찬 (김용춘)천명공주의 남편될 자.  
 상대등 신라최고의 벼슬.  
 미륵삼존 세분. (미타삼존 彌陀三尊, 약사삼존 藥師三尊, 석가삼존 釋迦三尊)  
 개똥이 서동을 따르는 시복.  
 똥팔이  
 말뚝이 꼭두쇠와 광대패.  
 대신과 군사들  
 사냥꾼 1 2 3.  
 外 총 20명 출연.

여기에서는 무대가 장르전환에서 변화여지는 것 중에 하나이다. 또 등장 인물이 많아지면서 여러 인물들이 추가된다. 개똥이, 똥팔이, 말뚝이, 꼭두쇠와 광대패 대신과 군사들 시녀들, 아낙들, 사냥꾼 1 2 3이다. 뮤지컬에서는 이야기보다 등장인물을 추가하는 것이 이야기에서의 형식변화로 보여진다. 이러한 변화의 요소는 관람자의 구체적인 시각적 효과를 주기 위한 수법의 하나로 본다. 그러므로 서동의 인물묘사에서는 본래 이야기에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뮤지컬에서는 풍채, 영특한 성품, 호걸스런 청년으로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1장 서동의 집앞/ 용화산 사자사 뜰.  
 은신중인 서동어미의 집이 어슴푸레한 새벽빛에 보일 듯하고 무대 다른쪽엔 사자사의 지명법사가 조용히 가부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 부분에서도 서동집이 어슴푸레한 새벽빛에 보일 듯하고 무대 다른 쪽에는 사자사의 지명법사가 조용히 가부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이중 구조로 처리한 듯 보인다.

지명법사 (별이 오는 소리에 눈을 뜨고) 참으로 존귀한 분이 오시는구나!  
 나! 나무관세음보살..

M1- “서동의 탄생”. (배경음악)  
 지명법사가 목탁을 치기 시작하자 서동어미가 산통을 겪느라 요동치는 모습이 문풍지로 비쳐보이고 뚝뚝 뚝뚝 북소리와 그에 어우러지는 여러 음악 소리가 신이 난 듯 몰려든다. 연못 속에서 꿈틀대던 용 한마리도 솟구쳐 올라와 춤을 춘다. 갑자기 그 만장 하던 기세가 일제히 숨죽이는 적오의 순간 적오를 찢어내는 우렁찬 아기 울은 소리.

뮤지컬이 장르전환에서 변화 가능한 것은 배경음악을 넣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평면적인 시가에서 입체적인 종합예술로 거듭난 형태이다. 또한 음악을 이용해 인물을 구체화시켜 관객들에게 현장의 생동감을 더해주는 것도 뮤지컬의 특성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이 시가가 뮤지컬로 장르가 전환된 것이다.

연못 속에서 꿈틀 대던 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가에서는 용의 아들로 용은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뮤지컬에서 용을 등장시켜 관객들에게 머리 속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E 응에 ^^  
 용은 어느새 희뽀한 공중 속으로 사라지고 여인네가 갓낳은 아기를 소중히 싸안고 나와 용이 사라져간 하늘을 향해 노래를 부른다.

M2- 어머니의 노래(서동모의 독창)  
 서동모 하늘이시여! 별님이시여!  
 이 아이를 보살펴 주세요  
 혹여나 누가 알아챌다면  
 어린 생명을 앗아가겠지  
 이 귀한 생명 위해서라면  
 여기 숨어서 지내겠어요

하늘이시여! 별님이시여!  
 이 아이를 지키어 주세요.  
 기약도 없는 왕가의 핏줄  
 나의 한 생애 인연됐으니  
 이 귀한 생명 지키기 위해  
 이름도 없이 살게 하리라.  
 (혼자 중얼거리며) 아기가. 세상이 널 눈치채선 안돼. 알겠니?  
 그래 이름일망정 천하게 지어줘야지.

이 장면에서는 서동모의 독창이 이루어지는데 뮤지컬의 장점 중에 하나이다. 서동모의 독창은 각종의 운율이 있는 시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진다.

11장  
 대덕 미륵님이 오셨습니다.  
 덕만 뭐라고요?  
 대덕 저길 보십시오 공주마마.  
 덕만 나무관세음 보살! 세상에! 오, 이제 사라지셨군요.  
 대덕 두 왕손의 만남이 대자대비 부처님의 인연법에 의한 것이었나 봅니다.  
 덕만 그러니 저들을 그냥 죽이겠습니까. 묘방을 알려주세요. 스님  
 대덕 (망설이다가) 아니될 일이나 한가지 수가 있긴 있습니다.  
 덕만 말씀해주세요. 죽기로 해보면 아니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동 (간절하게) 묘방을 말씀해주세요.  
 선화 (동시에) 묘방을 말씀해주세요!! 스님!  
 대덕 주문을 만들어 퍼뜨려 보는 것입니다.  
 덕만 주문이라고요?  
 대덕 저들의 사랑을 노래로 만들어 장안의 어린 아이들이 밤낮으로 외고 다니게 해보십시오.  
 선화 참으로 그러면 된단 말인가요 스님?  
 대덕 예로부터 못사람의 입은 쇠도 녹이는 천의 소리라 하였습니다. 순진한 어린아이들에게 주문을 외게 하면 뜻이 하늘로 통하여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덕만 그건 안됩니다. 이일이 세상에 드러나면 우리 선화가 큰 곤욕을 치루게 될 것입니다.  
 선화 전 상관없어요 언니! 차라리 이 일을 널리 알려 세상에서 허락하면 결혼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동님과 함께 죽겠어요.  
 덕만 서동님, 한번 해보시겠소?  
 서동 해보겠습니다. 뭐든 다 해보겠습니다.  
 덕만 (서동에게) 어찌 노래를 퍼뜨릴 작정이시요?  
 서동 아이들에게 맛있는 마를 나누어 주면서 그 대가로 노래를 외게하면 금방 퍼져 나갈 것입니다. 장안까지 멀리 멀리 퍼져 나갈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서동이 먼저 노래를 퍼뜨려 선화공주가 쫓겨나게 되고 다음에 서동이 공주에게 나타나 함께 떠나는 이야기 구조이다. 여기에서는 둘 사이에는 어느 정도로 사랑이 싹트며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언니인 대덕과 덕만공주까지 가담하는 것으로 진행한다. 장르전환에서 변하지 않은 것 중의 하나가 주제라고 생각한다.

M21- 서동요. (어린이들의 합창)  
 아름다운 공주님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맛동방을 사귀고 있네  
 깊은 궁궐 속 선화공주님은  
 밤이면 맛동방을 꼭껴안는대.  
 후렴> 서동 서동 서동의 사랑  
 선화공주 사랑은 서동뿐이네.

이야기에서는 후렴구가 없지만 극본에서는 후렴구를 첨가한다. 서동도 선화공주뿐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뮤지컬이 원본만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극작가의 주관적인 면이 강조되어 있다.



## 5. 맺은말

뮤지컬 〈서동요〉, 영화 〈춘향전〉, 타이타닉이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주제가 사랑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예전에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된 ‘spirit of the dance’는 아일랜드의 민속춤을 아일랜드인의 사랑의 서사적 이야기를 현대적 춤과 노래를 수용하여 뮤지컬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에서 관객의 사랑과 눈길을 끌었다. 이 뮤지컬의 기저에는 본래 사랑이 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동요〉는 장르적으로는 서사담 속의 시가이다. 본래 문학의 원시 형태는 가사+무용+음곡으로 이루어진 형태였다. 이를 일반적으로 종합예술이라고 한다. 이 종합예술은 시간과 삶의 발전으로 위의 세 요소는 각각 분화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중 가사는 문학으로, 무용은 연극으로, 음곡은 음악으로 독립되어 발전하면서 오늘의 예술형태가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예술의 형태는 사실상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되어 시간을 경과하면서 그 형태가 현대의 장르로 형성된 결과물이다.

〈서동요〉는 歌詞의 뿌리에서 이루어진 詩歌이다. 이 〈서동요〉라는 시가가 뮤지컬로 전환해서 공연한 것이 뮤지컬 〈서동요〉이다. 곧 평면적인 시가가 입체적인 뮤지컬인 춤+연기+노래 등으로 연출되면서 장르가 전환되었다. 여기서 시가에 무대와 관객과 연기가 가미되어 본래 〈서동요〉의 형태를 벗어나서 창의적인 뮤지컬 장르로 시가가 전환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장르의 전환에서 불변의 요소가 있다고 본다. 본래 작가의 의도와 이 작품이 지향한 주제는 변하지 않는다. 〈서동요〉가 뮤지컬로 장르가 전환된 것은 단순히 시가의 감상이나 스토리가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뮤지컬 〈서동요〉는 〈서동요〉가 관객 앞에서 공개적으로 대중과 더불어 토의하고 연출자의 조언과 해석을 듣는 작품의 다른 이해의 하나일 것이다. 〈서동요〉에 대한 일종의 환골탈태이다. 장르의 전환은 작가의 작품에 대한 독자의 보다

쉬운 접근과 이해의 또 다른 방법의 하나일 것이다.

### ■ 참고문헌

一然, 『三國遺事』

P. 방티겔, 김종원, 『비교문학』, 예림기획, 1999.

金思燁, 『鄉歌의 文學的 研究』, 啓明大學校出版部, 1979.

金成基, 「武王條·薯童背景譚研究」,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2001.

김종우, 「서동요연구」, 『삼국유사의 문예적 연구』, 새문사, 1988.

박노준, 「서동요」, 『향가문학연구』, 열화당, 1982.

박노준, 『新羅歌謠의 研究』, 『悅話堂』, 1982.

박노준, 『향가여요의 정서와 변용』, 태학사, 2001.

사재동, 「서동요의 문학적 실상」, 『한국문학유통사의 연구』, 중앙인문사, 1999.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예림기획, 2002.

양희철, 『삼국유사향가연구』, 태학사, 1997.

李雄宰, 『鄉歌에 나타난 庶民意識』, 白文社, 1990.

張珍晷, 『新羅鄉歌의 研究』, 螢雪出版社, 1996.

정상균, 『한국중세서사문학사』, 아세아문화사, 197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1995, 151쪽.

최래옥, 「서동의 정체」,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투고일 : 2007. 12. 31. 심사일 : 2008. 1. 16. 심사완료일 : 2008. 2. 11.〉

〈Abstract〉

## Modern Transmutation From Seodongyo

Yu, Yuk-rye

Seodongyo is Hyang ga found in the king mu of Samgukyusa by Ilyeon.

Seodongyo is the love story between the ordinary man Seodong and the princess Seonhwa.

Our Korean people have enjoyed reading this story. Besides, they can enjoy the musical Seodongyo on the stage. The original Seodongyo differs from the musical seodongyo on the stage according to the modern media techniques. The musical Seodongyo transmutes into the detailed story from the poem seodongyo which touches the sentimental emotion simply. The musical Seodongyo keeps the unchangeable theme and intention from the original Seodongyo.

The theme of Seodongyo is the romantic story between the ordinary man Seodong and the princess Seonhwa which surpasses asocial status and nation.

The theme of seodongyo measures the story of Romeo and Julet even though it ends a happy ending.

**Key words** : seodong, Seonhwa, Seodongyo, Musical Seodongyo, love story